

제주해녀의 물질기술과 민속지식

한림읍 귀덕리 이태희, 강주화 해녀 인터뷰

해녀: 이태희(1952년생), 강주화(1960년생)

인터뷰 일자 : 2019. 06. 24.

인터뷰 : 좌해경(Q로 기록),

해녀 : 이태희(A로 기록), 강주화(B로 기록)

Q : 작업 경력이 어디 육지 물질 갔다 오셨던 허명

B : 예. 육지 물질 우리 아가씨 때 갔다 완. 한 오년(5년). 오년(5년) 갔다 완.

Q : 어디 전라도 쪽으로

B : 예. 전라도 쪽으로. 거기에는 물이 완전 빨물이라예. 막 물이 컴컴해서 그냥 이렇게 가서 수경이 여기 다다라야 ‘여기 돌이로구나’ 그 정도로 물이 컴컴해. 그런 디도 물건을 잡아 내어.

Q : 무슨 뭍 주로 잡아내서?

B : 거기도 빨 해삼, 검은 해삼. 육지 해삼이니까. 그거 잡고, 또 빨 고동. 그때는 어려가지고 혈 줄도 모르고, 그냥 놈이 간덴 가신디 혈 줄도 모르고, 이제꺼지 마음도 욱고¹⁾ 해시면 은 혈 건디 못 했어 돈도 못 벌고, 옛날이라.

Q : 재미로뎀 간거지 뭐

B : 어, 놈뎀 가가니까, 예

Q : 여기서도, 언니네 해녀노래는 어떻게 배웠수과?

A : 으음, 저 어디 갈 거라. 아, 소문 들언?

Q : 몰라

A : 광주, 그 세계수영

B : 선수권

A : 수영권대회, 선수권대회에 갈 건디 이십칠일(27일) 날 갈 건디, 막 지금 부지런히 배워서

Q : 음. 연습행

A : 선생님 해여그네. 영자 선생님

Q : 아, 영자 선생님 왕, 배암고이

A : 음, 거 본회가 되어서. 우리가 보존회가 되난, 이제 그거 배암 도에서가 거기서가 연락 온 모양이라. 한팀 보내렌 허난 이제 우리를 선택해신디 “잘해야 됩니다. 잘해야 됩니다.” 덜 왕 부지런히

Q : 테왁 두드리명 몬 배와

A : 응. 장단도 허벅을 몇 개 못 가져가부니까, 테왁으로 해야주

Q : 그 언니네 숨비소리도 이제도 나오니까?

B : 우린 신세대라부난예 혈 줄 몰라게. 할머니

A : 호이호이 허는 사름 몇 사름 잇긴 잇인디 우린 나오믄 입으로 지친소리

Q : 그냥 후~ 허는 정도예.

B : 호이소린 못허여

1) 욱고 : 약고 => 욱다 : 께나 지혜가 있다. 약다. 어느 정도 나이를 먹어 성숙하다. 말귀를 알아듣고 판단할 만큼 성장하다

A : 그게 힘들어. 야인 그리 깊은 물질해도
 B : 우린 못 허여
 Q : 그 소리 안 해도 되어?
 B : 안 해도 되어
 Q : 그 귀에 이 수압은 어떻 햄수과?
 B : 우린예, 그 깊은 물 수압이예, 뭐 엇어[어서]. 그 귀 안 막고 해도 그냥, 그냥 갈 수 있어.
 어떤 사람들은 껌 막고 막 경허거든마썸. 경헌디 우린
 Q : 잘허는 사람들은 수압 영향을 안받으는 모양이라
 B : 아니, 어떤 때는예
 A : 아 난 막아, 막으면 더 못허크라라
 B : 귀가예. 귀가 안 열아지믄 이 조금도 못 내려가. 이 귀가 안
 A : 거난 코감기 약 항상 먹어.
 B : 감기 기운이 있을 경우나 어떻게 혈 땀예, 귀가 안 열아줘. 경헌디 코도 안 열아지면은
 못 들어가. 코가 뻑뻑뻑뻑 하면서 감기 기운이 있으면은 못 들어가
 A : 코감기 약을 항상
 Q : 깊은 물을 못 간다라는 거
 B : 예예. 얇은 디도 못 가. 그추록 이 코허고 귀허고 고장이 나면은
 Q : 어
 A : 게, 약을 먹엄주게
 Q : 거난 물 속에서도 호흡을 허는 거 아니?
 B : 아, 물속에서는 숨을 참고 가야쥬
 A : 숨을 참어
 B : 어떻게 호흡을 허여
 Q : 호흡기가 터진다라는
 B : 거, 수압 수압 수압
 Q : 아, 수압이
 B : 수압이 이렇게 가면은예
 A : 소리 나, 소리 나
 B : 만약에 이런 우리가 이 육지에서는 이런 침예. 이런 침. 침을 꿀꺽 삼키면은 귀가 탁 터
 저요
 A : 팍 강 터져
 B : 폭 소리가 나는 것 같애. 그러면 얼마든지 갈 수 있고, 귀가 안 열아지면은 못 가. 수압때
 문예. 깊은 데는 못가요
 Q : 바당 관리는 언니네가 허고 있잖아, 지금예
 A : 으음
 B : 지키고
 Q : 음, 어떤 식으로 햄수과?
 A : 조 짜
 B : 조를 짜서
 A : 물 쌀 때만, 물 찌에만
 B : 오늘도 안허네.

Q : 청소 같은 거는 어떻 햄수과? 청소
 B : 청소는 이제 읍사무소
 A : 아니. 읍사무소에서 도와주는데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번이나, 몇 달, 한번정도는 어촌계
 원 전체, 청소. 읍사무소에서 많이 도와줘,
 Q : 여기 많이 깨끗하네
 A : 깨끗해 깨끗해
 Q : 아주 깨끗해
 A : 해녀학교 있는 마을이라서 그런지 읍사무소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는 것 같애.
 Q : 아, 그렇구나예. 뭐, 갯담이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헐니까?
 A : 작년예?
 B : 재작년에
 A : 재작년에 한
 Q : 아, 일년에 한번정도?
 A : 일년에 한번정도 하고, 또 이년에 한번정도 하고
 Q : 지층이 같은 거
 B : 예, 지층 지층, 툷 툷 툷뻗디
 Q : 툷뻗디예
 A : 음
 Q : 그 해녀일 하면서 ‘아, 내가 이일을 잘했다’ 싶을 땐 언제
 B : 아이, 잘할 때 헐 때는 엇입니다게. 너무 힘들어. 만약에 우리가 십오일(15일)에 팔일(8일)
 작업허고 일주일은 놀잡아요. 팔일(8일) 마지막 허는 날은, 아, 내일은 안 할 거니까 기분
 이 좋아
 A : 아하하하
 B : 허허허. 물건을 많이 헐든 못헐든 내일은 안 할 거니까 기분이 좋아
 Q : 언니 욕심이 엇인 생이여.
 B : 계난
 A : 다, 다 욕심은 그저 그렇고 헐데 나 역시도 우리가, 우리가 살지잖아. 경헌디 물에 들어
 갔다 오민 편해. 그래도 운동 삼아 갈 수도 잇어. 가는 것 같애. 나도이
 B : 운동 삼아가 아니거든, 노동이거든.
 A : 노동인데 일주일만 물에 갔다오믄 이, 이 뱃살이 빠지는 것 같애. 그래서 더 열심히 가
 저. 우리는 살찌부난. 야넌 안 살찌난 해도 살찐 사람 심정을 모르잖아이. 경헌디 물에
 가면 아멩해도2) 뱃살은 빠져
 B : 힘들잖아
 A : 힘이 드니까
 Q : 힘이 들다라는 생각 많이 들엄구나
 B : 그럼요
 A : 밥을 못 먹거든. 갔다 오면 입이 짜서, 그래서 그러는 거 닳아
 B : 입이, 입안이 다 부풀어요
 A : 짜 짜
 B : 이제, 뭐냐, 뭐라고 할까. 우리가 비 올려고 허면 이 손에 막 그냥 부풀잡아요. 그런 식으

2) 아멩해도 : 아무리 해도.

로 밥맛이 하나도 없어요. 그니까 내일은 안 갈 거로구나 허면 기분이 좋아.

Q : 설 거로구나 허면예

A : 잘해요 그냥

B : 어허허허허. 눈 욕심으로 물에 거는예

A : 서, 성계도 일등(1등)으로 허여. 아이고, 저 많은 돌을 다 일러

Q : 경허니까 힘든 거지

B : 그래, 힘든 거지. 경헌디예, 물건 못허는 날이 더 힘들어. 물건 많이 허는 날은 힘들지 안 허여.

Q : 기운이 생기난

B : 예. 물건 못허는 날이 힘들어

A : 야, 경해도이 이제 그거에 내려왔잖아. “팔십(80) 넘은 노인은 한달에 삼십만원(30만원) 줄테니까 물질을 하지마세요.” 허연 계장님이 발표를 했는데도 팔십여섯(86) 난 사름도 물질 허켄 한. 안 허켄을 안 허여.

B : 허허허허

Q : 삼십만원 안받고

A : 안받고, 이십만원(20만원)을 줘부난. 이십만원(20만원) 받고 물질을 허켄

Q : 으응

A : 계난 위험허니까 허지 맙센³⁾ 햄수게 허난 “아녀, 이 성계허영 아이덜도 주곡”. 허였져. 얼마 허지도 못 허명. 해녀마음 똑 같애. 경해여 이젠

Q2 : 돈은 수익에서

B : 아뇨, 나라에서 나오잖아요

Q2 : 아

A : 지금 우리 그 뭐 됐잖아요. 그거 되니까 돈이

B : 유네스코. 칠십 칠십세(70세) 이상은 십만원(10만원), 이제 팔십세(80세) 이상은 이십만원

Q : 그 다음 물질 안 하시면 삼십만원(30만원)

B : 삼십만원(30만원), 팔십세(80세) 이상이 되어

A : 팔십세(80세) 이상만. 하하

B : 우리, 나도 삼십만원(30만원) 주민 안 헐 건디.

A : 아하하하하

Q : 한달에?

B : 응

A : 한달에. 삼백육십만원(360만원) 벌지 못 허여. 할망덜, 우리도 이제 앞으론 못 벌 건디

Q2 : 그 연금은 어떻 따로 받는 거죠?

B : 연금, 예. 해녀 해녀연금, 해녀연금

A : 응, 해녀

Q2 : 노령연금이랑 따로 받는 거죠?

B : 예, 노령연금이랑, 해녀연금이랑 다 받아요

Q : 저기, 바당에 갔을 때 막 무섭다라는 생각은 안듭니까?

B : 무서운 건 엇어

A : 별로 엇어

3) 맙센 : 마시라고

B : 곱췌기⁴⁾가 나타나도 그냥 그러려니 하여
A : 물 알로 가렌 허믄 가
Q : 이 바다가 좀 편안한 모양이다
B : 아아,
Q : 무서운 데도 이신덴 허는디
A : 여기는
B : 아아, 여기는 다 가⁵⁾이잖아요. 지금 막 그냥 저 등대 밖에 나간 사름덜, 우리 우리 동네
에서도 멧 사름 이 손가락, 다섯손가락 안에 저 밖에 나가지, 다 가에 들어요.
A : 곱췌기
Q : 무서운데도 없고
A : 무서운데도 있덴, 바당? 음
Q : 물 때는 조금에서 여섯물 사이만?
B : 네. 다섯물까지. 야
Q : 다섯물까지만
A : 우리, 우리가 제일 물에 안 들엄실 거여. 우리 동네가 쪽파 주산지안 겨울에는 추우니까
허지 맙서. 경허여그네 한 혼 석달(3달) 놀아불고. 거의 못 허게, 안 허니까 다 편안해.
추우니까 너무 추우니까
Q : 예, 맞수다게
A : 허지 맙셴 혼 석달(3달) 놀아불고
Q : 그, 애기덜 키우멍 물질 했던 애기나 해봅서
B : 우린 애기덜 키우멍도예. 그렇게 막 힘들게 키우지 안 허연. 우리 시절에는
A : 어머니 계시난
B : 우린예, 시어머니도 계시고, 친정어머니도 이제 계시고 헌디예. 그때 당시는 막 소라가 많
이 있었어예. 경허연 이제 막 그냥 이런 여예 우티로 막 퍼. 망아리채 어디다 막 평 놔두
른 이제 우리 어머니덜이 와서 리야카, 옛날에 경운기가 잇어수과 뭐가 잇어수과. 리야카
가져당 그걸 저내영 그냥 리야카에 막 실러⁶⁾ 경행 또 저기 강 담그고. 우리는 애기 키울
때는 막 이제 젓 먹게 되믄 젓이 빵빵행 막 아파예. 허믄 그, 그 것 때문에 물에 오래 들
지 못 허영 나아 돼. 다른 사름덜은 네시간(4시간) 되도록, 나는 세시간(3시간)만 해가믄
가슴이 아파가지고 나아 돼. 경허연 그냥 그럭저럭 어쩔 수 엇이 커신지 모르크다. 흐흐
흐
Q : 벌써 다 되엄수다
B : 예
Q : 여기도 어디 당이 잇우광?
A : 음, 이리,
B : 할망당
A : 할망당이고, 우리는 저, 요디 당은 잇어. 당은 잇인디, 거 엇어져불연
Q : 거 언니네는 뭐, 여기 어느 당에 가
A : 이 귀덕1리

4) 곱췌기 : 돌고래

5) 가 = 갓, 가장자리 예) 갓갓 : 갓가, 바당갓 : 바당가, 물갓 : 물가

6) 실러 : 실어

Q : 귀덕1리야
 B : 할망당
 Q : 아아, 감구나. 제 혈때는 글로 강예
 B : 예.
 Q : 그 저기 당에 안 강 바로 지 들이기도 허고, 언니네?
 A : 당에 안 가
 B : 절간⁷⁾에도 가고
 A : 절간에도 가고
 Q : 절간에도 가고,
 A : 당에 가는 사름
 Q : 지 썩 바로 들이기도 허고?
 B : 예. 요왕제, 요왕제
 Q : 요왕제 기본이라도 뭐 허면
 B : 아니, 경은 안 험니다.
 A : 절간에서 해주난
 B : 이젠 옛날 시절 다 넘어가불언 옅어
 Q : 아직 멀어수다게. 한 이십년(20년)은 해야 될 거 아니?
 A : 이히히히. 이십년(20년) 허젠? 팔십(80) 나쁜 설러⁸⁾이
 B : 응
 A : 팔십(80) 나쁜 설르켄. 하하하하
 Q : 몇살까지 허쿠과?
 A : 나도 팔십(80) 나쁜 설르켄
 B : 이 언니 등치⁹⁾광. 백(100) 나도록 해야주
 A : 아니, 팔십(80) 날 때까지나 해보주게 이.
 B : 경헌디 허리 오그라지믄 오늘이라도 설러. 보기 싫고 안돼
 A : 팔십(80)까지는
 Q : 언니네도 약 먹고?
 B : 예게. 우린 액티피드 혼방울 먹어야돼
 A : 그 액티피드 먹어. 코감기약, 코감기약 한방울
 B : 귀가 열리지게
 A : 안혈 땀 안 먹고
 Q : 아, 귀가 열리지게끔
 A : 음
 B : 요번에 성계 물에 들어올 때 안 먹어도 아뭇지도 안험디다.
 A : 거 7이난. 거 첫날만 먹으민이 다음날부터 먹지 말아야 되는데 거 습관땡 자꾸 먹어진단 말이여.
 Q : 게, 머리 아프는 건 아니우다예.
 B :예.

7) 절간 : 사찰, 절

8) 설러 : 그만 뒤 => 서르다 : 하던 일을 그만 두다. 벌어 놓은 것을 치우다.

9) 등치 : 덩치

A : 머린 아녀
 B : 예예
 Q : 귀 열리는 거
 A : 코 안 열어져가면 머리 아픈대개. 코가 열어야만 모든 게 다 편안해주
 Q : 그 노래들은 잘 배와시냐 여기 피디(PD)가 물어보켄 햄수다.
 B : 물어봅서. 여기레
 Q3 : 아니, 있다가 노래 하는 거 한번 구경허젠. 질문 다 끝나고
 Q : 다 끝났어요
 Q3 : 저 하나 물어봐도 돼요? 힘드실 땐 왜 근데 계속 하세요?
 B : 어디
 Q3 : 힘든데
 B : 어우게, 돈벌이를 해야 되잖아요. 놈¹⁰⁾ 가가문 가야지
 Q3 : 돈벌이?
 Q : 돈을 벌어야 되니까
 B : 그래, 돈을 벌어야지
 Q : 돈이 있어도 남 가가면
 B : 예. 해녀의 마음은 똑같애. 잘허는 사람이든 못허는 사람이든.
 Q3 : 뭐가 똑같애요?
 B : 남 가문, 가는 거는 똑 같은데 나오는 거는 다 틀려. 어허허허
 Q : 아주 명답이우다
 B : 가는 거는 똑 같애. 같은 시간에 가고, 같은 시간에 나도
 Q : 만색은 흰 색인데 나올 때는 천칭만칭¹¹⁾
 B : 천칭만칭. 맞아 .
 Q : 응, 경 곱아
 B : 그래요. 갈 때는 똑 같은 마음으로 가고, 나올 때는 다 틀려
 Q : 건데 언니는 좋으크라
 B : 왜.
 Q : 물건을 많이 잡으니까 항상 행복허잖아
 A : 음, 물에 들었은 걱정이 엇어
 B : 어허허허
 A : 아하하하
 Q : 바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?
 B : 아, 고맙지예. 고맙주게
 Q : 누구한테 고마워
 B : 아니, 바다한테 고마운거지.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런 가에 이런 밭에 일 하면은
 일당 많이 준덴해도 칠만원(7만원)이잖아요. 건디 바다에는 성계 같은 거 잡을 때는 진짜
 로 재수가 좋면은 삼,사십만원(3,40만원)은 벌잖아요. 거니까 그게 고마운거지. 같이 들
 어,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십명(40명)이 같이 들어가도 잘허는 사람, 못허는 사람
 차이가 있잖아요

10) 놈 : 다른사람. 타인

11) 천칭만칭 : 천층만층(千層萬層), 매우 많은 사물의 구별되는 층. 또는 그런 모양

Q : 언니는 농사는 안하고?
 B : 농사도 해요
 A : 농사도 많이 하고
 Q : 농사도 하고. 무슨 농사?
 B : 쪽파도 심고, 브로콜리도 심고,
 A : 기장도 많이 하고
 B : 기장도 많이 하고
 A : 허허허
 Q : 그러면은 일년에 한 몇천만원 되겠다이. 한 오천
 B : 경헌디, 경헌디 가격이 안 줘서
 Q : 뭐가?
 A : 수익이야, 순수익이 얼마 안되고
 B : 브로콜리 같은 것도
 Q : 아, 요즘에 야채값이
 B : 야채값이 안줘서
 Q3 : 돈을 많이 벌어서 다 어디다 쓰셨어요?
 B : 돈 많이 벌언 아덜덜도 장가도 보내고, 집도 사주고, 이력저력, 이제 살주 뭐
 A : 제주도 사름덜은 자식한테 다 투자허는거라. 정말로 투자허는 건 제주도 사람
 Q : 다시 태어나도 해녀 허실 거?
 B : 다시 태어나든 허지 말주게. 한번 한번 허난, 다시 태어난 허렌 헌 법도 없고
 Q : 허허, 몰라, 다시 태어날 수도 있어
 B : 아, 기?
 A : 이 동네 태어남은 해야주
 B : 아이고, 게메
 A : 허허허허
 Q : 이 동네 태어나든 다시 헐 거?
 B : 해녀 힘들어
 A : 힘들어
 B : 얼굴도 시커멓게 카고¹²⁾, 성계 메칠 허난 얼굴이 새카망. 어으, 밭에서 카는 거는 타는
 것도 아니
 A : 아이고, 우리 금성 아이덜은 이 양성에 다 들어와그네, 그 어촌계 멘들앙 해녀허켄 허멍
 남저덜이 다. 금성은 여자덜이 물질을 안허젠 허주게
 Q : 예. 지금 해녀가 한사람도 엇어부난
 A : 아이고 양한진이 그 남당머리 그 아들도 왔고이,
 Q : 경헌데 금성 바당에는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네
 B : 그사름 그사름이 헌덴 허멍
 A : 저, 이 귀덕 바당이 그 오곶 좃아 앗아불언¹³⁾. 우리 셋밭 있잖아. 셋밭디 물건이 너무 좋
 주게이. 그걸 오곶 귀덕에서이 딱 츠지해불엇덴.

12) 카고 : 타다

13) 앗아불언 : 빼앗아버렸어 => 앗아불다 : 집어들어 판데로 옮겨 치워버리다. 빼앗아버리다. 없애버리
 다.

Q : 원래 귀덕바당으로 해볼엔 모양입니다.

A : 응, 아니. 영 뻘어, 옛날에 뻘어갔던 헨에이 좃아 앓아붙었던. 경헌디 해삼은이 금성만 몬 딱 해감젠 햄시네. 모래밭이난

Q : 귀덕 사람들

B : 근데 금성 해녀가 두사람(2사람)밖에 없던 허멍. 할망니덜 두사람(2사람)

Q : 할머니

B : 거난 지지. 그 사름덜 가서 해와붙어도 말 못허지.

Q : 말 못헐 거주

B : 경헌디 경계는예, 우리 역시도에 우리 바다보다 여기가 많겠지 그런 마음이 있어.

A : 거난 경계를 넘어가는 거게

B : 건디, 나는 빠르니까 경계 넘어가도 허는디에

A : 난 못 가. 난 못 가.

B : 이 언니넨 느려가지고 경계를 갈 생각을 말아야 돼

A : 무스왕¹⁴⁾ 못 가, 우리. 심으레¹⁵⁾ 아하하하

B : 거기서 잡으레 오면은 우리는 그 닻을 빨리 건너가지고 휘어, 놈보다 더 잘 휘어갈 수 있는데

A : 거난 아예 안가주게, 우린 아예 안 가

B : 갈 수 있는데, 이런 느린 언니덜은 가면 안돼지

A : 우린 아예 안 가

B : 잡혀, 잡혀

Q : 붙잡혀?

B : 오, 안돼

Q : 아, 그것도게이 혹시 저쪽에는 뭔가 있을까이

B : 아니, 우리 해녀덜 마음이 저 바다, 놈의 바다에는 많겠지, 그런 다 있어예. 경허영 우리 그디만 넘어가고 싶고 막 경허거든. 경헌디 이 언니넨 안 가. 자신이 없으니까. 우리는 잘 가. ㅎㅎㅎㅎ

A : 안가. 아예 안가. 무스왕 못 가

Q : 바다 이렇게 허면서도 좀 논다라는 그런 느낌도 됩니까? 편안하다

B : 아유, 바다에 가면은예. 무조건예 진짜로 노동이라. 무조건

A : 숨 들어야만 물건이 올라오니까

B : 물건이 올라오니까. 노동 노동

A : 거난 무조건

B : 무조건 뱃살이 들어간덴 허는 말

Q : 집중해가지고이?

B : 언제 어디가서 여기 있을까, 저기 있을까 그런 욕심 그런 것이 있잖아요

Q : 그 다음에 노래 한번 불러 봅서

B : 노래 한번 불러볼어

Q3 : 질문 아까 있다 다시 태어나도 해녀할거냐 그 질문만 한 번만 다시 돌아봅서

B : 언니가 돌아봅서. 자신있게

14) 무스왕 : 무서워서

15) 심으레 : 잡으러 => 심다 : 손으로 붙잡다. 붙들다.

Q2 : 아니, 질문만 질문만. 대답 안 해도 되고, 교수님 질문
Q : 언니네는 다시 태어나도 물질 하겠네. 해녀가 좋으니까
B : 좋지는 안 해
Q3 : 물질 하고 싶으냐고 물어 보세요
A : 여건이 어쩔 수 없이
Q2 : 언니네는 해주세요
Q : 언니네는
Q2 : 예. 다시
Q : 다시 태어나도 아, 다시? 언니네는 다시 태어나도 물질 할 거파?
A : 여건이 허락하는 한은 한번
B : 되수다
A : 해볼 수도 있는데, 구태여 뭐 돈벌이가 탄 거를 있다면 물질은 안하고도 살고 싶어
Q : 음, 이 바다에 만약에 언니네가 나이들엉 작업 못 허민 누가 헐 거라
B : 글썸
A : 그래서 양성을
Q : 엄청 물건들은 많아질 거고
A : 그 때되면, 고무옷 입음 시작허난 물건이 없어졌주게
B : 거난 우리가 바다에 들어가면 하루에 네시간(4시간). 딱 기를 꼽으면은 나올 수 있어
A : 경허니까 아뭏든 양성을 키울려고 우리가 한수풀 해녀학교를 하는 거고, 양성을 키워야지
Q : 양성해서
A : 양성을 키울 수 밖에 없고, 이 바다가 지키려면 어쩔 수 없지. 양성을 키워야 되어
Q : 양성을 해야 돼?
A : 음
Q3 : 수고하셨습니다. 노래 한번
B : 노래 불러봅서
Q2 : 노래 한번 듣고 싶다는데
Q : 언니네 노래 한번 해봅서
B : 이 언니만 노래 불러. 우린 노래 부를 줄 몰라
Q2 : 후렴이나
B : 빨리빨리 불러. 우린 헐 줄 몰라, 헐 줄 몰라
A : 이어도사나 허여?
Q2 : 예

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
흔 목을 젓엉 어딜 가리
진질¹⁶⁾ 바당 흔 골¹⁷⁾로 가자

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

16) 진질 : 긴 길

17) 골 : 갯가의 고랑. 파도의 작용으로 조간대에 해안이 침식 되어 육지 쪽으로 파인 고랑

삼도 띄랑 배질¹⁸⁾허기
선주 사공 노념¹⁹⁾이여
붓대나 심영 글 잘 쓰기
서울 양반 노념이여

이에도사나 이에도사나 이에도사나
잘잘 가는 참나무 배가
솔솔 가는 소나무 배가
잘도 잘도 가는구나

이에도사나 이에도사나 이에도사나

18) 배질 : 배일

19) 노념 : 놀이. 놀음. 여러 사람이 모여서 즐겁게 노는 일